

무자비한 복수전으로 철천지원수 미제를 한놈도 남김없이 죽탕쳐버리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번에서 계속

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적국 원수하고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빌주리인 군민대안결을 더욱 절절함이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정의 200일전투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전투장대에서 자랑한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미제와 괴뢰역적배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화국의 끈끈한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타당일해 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피기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전후의 나날 불사신의 기상으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적국 원수하고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빌주리인 군민대안결을 더욱 절절함이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정의 200일전투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전투장대에서 자랑한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미제와 괴뢰역적배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화국의 끈끈한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타당일해 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피기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전후의 나날 불사신의 기상으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적국 원수하고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빌주리인 군민대안결을 더욱 절절함이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정의 200일전투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전투장대에서 자랑한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미제와 괴뢰역적배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화국의 끈끈한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타당일해 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피기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전후의 나날 불사신의 기상으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적국 원수하고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빌주리인 군민대안결을 더욱 절절함이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정의 200일전투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전투장대에서 자랑한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미제와 괴뢰역적배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화국의 끈끈한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타당일해 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피기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전후의 나날 불사신의 기상으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적국 원수하고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빌주리인 군민대안결을 더욱 절절함이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정의 200일전투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전투장대에서 자랑한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미제와 괴뢰역적배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화국의 끈끈한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타당일해 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피기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전후의 나날 불사신의 기상으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적국 원수하고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빌주리인 군민대안결을 더욱 절절함이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정의 200일전투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전투장대에서 자랑한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미제와 괴뢰역적배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화국의 끈끈한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타당일해 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피기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전후의 나날 불사신의 기상으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적국 원수하고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빌주리인 군민대안결을 더욱 절절함이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정의 200일전투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전투장대에서 자랑한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미제와 괴뢰역적배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화국의 끈끈한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타당일해 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피기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전후의 나날 불사신의 기상으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어버리기 위한 사상전의 준비를 일으켜나간다는 것이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인 인민군대를 적국 원수하고 선군조선의 자랑이며 빌주리인 군민대안결을 더욱 절절함이 다져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정의 200일전투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전투장대에서 자랑한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가 미제와 괴뢰역적배당이 우리의 거들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화국의 끈끈한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불타당일해 버림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피기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화했지만 전후의 나날 불사신의 기상으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침략자들을 때려눕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 특사 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5일 민주주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하여 온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 특사인 네봉보 난디 온다이트와 부수장 겸 국제관계 및 협조상과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신홍철 외무성 부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바루토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 필리페 자쉴루 뉴씨각하

나는 모잠비끄공화국 국경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발전되기를 확신하며,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6월 26일 평양

자그레브 흐르바쓰카공화국 대통령 필리파 그라바르 까따로비츠각하

나는 흐르바쓰카공화국 국경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6월 26일 평양

천인공노할 살인귀 미제의 죄악을 종결산하리라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신천박물관, 수산리계급교양관 련일 참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신천에서 감행한 야수적탄압은 반세기동안, 계급교양을 전대로 소용하지 않았으며 원수들과는 오직 총대로 걸관내야 한다는 철리를 새겨주고있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아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날이 복하는 역사의 교감장인 신천박물관으로 복수자들의 대오가 끊이지 않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인민군군인들과 김일성종합대학, 제취공업성, 수도건설위원회, 덕천지구난방연합기업소, 중구역 류성초급중학교를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갈수록 미제는 더더욱 더러운 짐승으로 변질되어가고있다. 미제의 무대형범죄행위를 보여주는 사색어머니들과 백들이 어린이들의 학살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반경화앞에서 그들은 커이든 자식들을 갖는 어머니들의 피리는 웨실소리와 콩크리트바닥을 손톱이 긁도록 휘비며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오는것만 같아 오래동안 발정음을 매지 못하였다.》

미제의 무대형범죄행위를 보여주는 사색어머니들과 백들이 어린이들의 학살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반경화앞에서 그들은 커이든 자식들을 갖는 어머니들의 피리는 웨실소리와 콩크리트바닥을 손톱이 긁도록 휘비며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오는것만 같아 오래동안 발정음을 매지 못하였다.

또한 산 사람의 머리뼈를

로 쪼고 도끼로 찍고 이마에 대못을 박는 등 미제살인귀들이 감행한 살육행위에 대한 해설을 듣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원수들에 대한 천배의 복수열기가 끓어넘었다.

백년속적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복수심이 온 나라 강산에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는 속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산리에서 감행한 천인공노할 살육행위를 단련하여 교양하는 계급교양관으로 복수자들의 대오가 끊이지 않고있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아 인민군군인들과 녀맹중앙위원회, 철도성, 인민봉사총국, 상인세면도련연합기업소, 원군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매일 수천명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수산리계급교양관을 찾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 인시적후퇴시기 수산리에서 거역한 미제침략자들은 당시 인민군의 3분의 1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집중도 낮을 풀릴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역설적인 면연군이었다고 하여 백들로 짓눌러죽이고 한 사람의 생애를 도려내고 도끼로 땅을 쳐 죽였으며 썰부지 어린 아이를 연방이므로 무원히 죽이는 등 무수한 인간대학살행위를 감행한 살인귀들의 죄행

은 미제살인귀에 주된 살인마, 식인종무리라는것을 세계 앞에 폭로하여 보여주고있다.

애국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감행된 밤장교와 490여명의 애국자요, 온 가족을 도끼와 칼로 도륙을 내고 그후에 울려놓았던 원한의 정검들은 참관자들의 가슴가슴을 우리 인민이 흘린 피를 때려쳐내도 받아내고야말 복수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넘치게 하고있다.

계급교양관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원수에 대한 천배는 곧 복수라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었다.

처치는 적개성으로 파를 풀이며 복수열의모임을 가진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천인공노할 미제의 살육행위를 절규하면서 악의 총탄산인 미국을 이 땅, 이 하늘에에서 영원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격양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살인귀무리들이 저지른 만고의악의 역사를 철대로 찌르지 않을것이며 만악 저질이 핵전쟁도사선에 불탄다면 다시고도저는 선군의 위력을 총력발시켜 철천지원수 미제를 지구상에서 제거무도 없이 없애버림으로써 민족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